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Antonin Dvořák 의
Zigeunerlieder Op.55 에 관한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박 보 미

Antonin Dvořák 의
Zigeunerlieder Op.55 에 관한 연구

박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박 보 미

인 준 서

박보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드보르작(Antonin Dvořák 1841~1904)은 19세기 후반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로 보헤미아의 민요적 음악과 독일 낭만 음악을 잘 융합하여 독창적인 음악양식으로 확립시킨 작곡가이다. 이를 기악, 성악곡에 호소력 짙은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바그너와 브람스의 영향을 받아 가곡들이 독일 리트와 흡사하고 종종 브람스의 가곡과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집시의 노래 Zigeunerlieder> Op.55는 드보르작의 성악 작품 중 민족적 음악특징과 집시음악의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집시음악의 공통적 특징인 자아의식과 자존감을 보이며, 템포, 리듬, 강약법의 변화가 급격히 쓰여져 격렬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 작품은 헤이дук(Adolf Heyduk 1835~1923)의 시집에서 7편을 선택하여 만들었으며, 집시들의 삶과 애환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집시음악의 효과적 표현을 위하여 멜로디와 리듬에 집시악기 묘사를 많이 하였으며, 거의 변형유절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무곡풍의 음악과 아름다운 선율을 갖고 있으며, 음의도약과 꾸밈음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드보르작의 생애, 그의 음악과 가곡의 특징, 집시음악 특징을 연구하고, 악곡 분석과 시의 해석을 통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 <집시의 노래> Op.55 연구를 통해 집시적 음악과 민족주의 적인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1. 드보르작의 생애 및 가곡의 특징	
1) 드보르작의 생애	2
2) 드보르작 가곡의 특징	7
2. 집시음악의 특징	
1) 집시음악의 공통적 특징	9
2) 동유럽 집시음악의 특징	11
3. Zigeunerlieder Op.55	
1) 작품 개요	12
2) 가사해석과 악곡분석	14
III. 결론	55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집시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	10
[표 2]	제 1곡의 형식	16
[표 3]	제 2곡의 형식	22
[표 4]	제 3곡의 형식	28
[표 5]	제 4곡의 형식	35
[표 6]	제 5곡의 형식	40
[표 7]	제 6곡의 형식	45
[표 8]	제 7곡의 형식	51

〈악보〉 목 차

〈악보 1〉 제 1곡 마디 1 ~ 7	17
〈악보 2〉 제 1곡 마디 10 ~ 12	18
〈악보 3〉 제 1곡 마디 27 ~ 32	19
〈악보 4〉 제 1곡 마디 33 ~ 37	20
〈악보 5〉 제 2곡 마디 1 ~ 4	23
〈악보 6〉 제 2곡 마디 9 ~ 16	24
〈악보 7〉 제 2곡 마디 25 ~ 28	25
〈악보 8〉 제 2곡 마디 39 ~ 47	26
〈악보 9〉 제 3곡 마디 1 ~ 4	29
〈악보10〉 제 3곡 마디 5 ~ 12	30
〈악보11〉 제 3곡 마디 13 ~ 21	31
〈악보12〉 제 3곡 마디 34 ~ 41	32
〈악보13〉 제 3곡 마디 22 ~ 25	33
〈악보14〉 제 4곡 마디 1 ~ 6	36
〈악보15〉 제 4곡 마디 11 ~ 12, 마디 15~16, 마디 31, 마디 35····	37
〈악보16〉 제 4곡 마디 38 ~ 50	38
〈악보17〉 제 5곡 마디 1 ~ 13	41
〈악보18〉 제 5곡 마디 45 ~ 50	42
〈악보19〉 제 6곡 마디 4 ~ 6, 마디 35 ~ 38	46
〈악보20〉 제 6곡 마디 15 ~ 34	47
〈악보21〉 제 6곡 마디 42 ~ 45	48
〈악보22〉 제 7곡 마디 1 ~ 7	52
〈악보23〉 제 7곡 마디 18 ~ 19	53
〈악보24〉 제 7곡 마디 31 ~ 33	53
〈악보25〉 제 7곡 마디 38 ~ 40	54

I. 서 론

드보르작(Antonin Dvořák 1841~1904)은 19세기 후반 동유럽 보헤미아¹⁾ 작곡자로 명성을 얻은 작곡가이다. 그는 슬라브민요²⁾의 영향을 많이 받아 슬라브 민족의 정신을 낭만주의 음악으로 승화시켜, 민족적인 감각, 미국 흑인음악의 이국적 정서,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을 잘 융합시킨 대규모의 기악, 성악 작품들을 남겼다.

<집시의 노래 Zigeunerlieder> Op.55는 드보르작의 성악 작품 중 민족적 음악특징과 집시음악의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본인은 대학원 졸업 리싸이틀을 준비하면서 이 작품을 접하게 되어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해 연주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논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드보르작의 생애, 그의 음악과 가곡의 특징, 집시음악 특징을 연구하였고, 악곡 분석을 통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성악가 입장으로 보았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덕션과 시의 단어별 (Word by word) 해석을 중점으로 하고, 연주 시 주의 할 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
- 1) 체코의 서부지역. 체코를 동서로 나누어 동부를 체코명으로 모라바(모라비아)라부르고, 서부를 체히(Cechy)라 부르는데, 이 체히를 라틴어로 보헤미아, 영어로 보헤미아, 독일어로 뵘멘(Böhmen)이라 한다
 - 2) 슬라브 여러 민족의 음악을 통틀어 말하는 편의적인 호칭으로 슬라브족은 러시아 인 · 우크라이나 인 등의 동슬라브, 폴란드 인, 체코 인, 슬로바키아 인 등의 서슬라브, 세르비아 인, 크로아티아 인 등의 남슬라브 등 세 개 민족군으로 분류된다

II. 본 론

1. 드보르작의 생애 및 가곡의 특징

1) 드보르작의 생애

안토닌 드보르작(Antonin Dvořák)은 1841년 동유럽 체코의 프라하 근교인 몰다우 강변에 있는 벨라호제베스(Nelahozeves)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프란티세크 드보르작(Frantisek Dvořák)은 가업을 물려받아 여인숙과 푸줏간을 운영하였고 어머니 안나는 시골저택 집사의 딸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드보르작은 자연을 벗 삼고 일상 속에서 체코 특유의 민요를 접하여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며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입학한 그는 교장이자 오르간 연주자인 요세프 스피츠에게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악단에서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11세가 되던 해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필요한 독일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삼촌이 계신 즐로니체(Zlonice)라는 작은 마을로 보내졌다.

그는 그 곳에서 교사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안토닌 리만(Antonin Liemann)에게 독일어 뿐 아니라 피아노, 오르간, 비올라 등 악기연주법을 배우게 되었다. 엄격한 규율가이자 헌신적인 선생님이었던 리만은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드보르작을 보고 기뻐하며 화성학, 대위법도 가르치고 작은 악단에 들어오도록 권유했다.³⁾

3)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역, (Marshall Cavendish Corp.), 『The Great Composers』, 서울: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그 후 드보르작은 그의 부모가 즐로니체에 있는 큰 여인숙을 인수하자 그 일을 도와야 했기에 음악공부를 중단하게 되었으나 삼촌과 선생님의 설득으로 열여섯 살 때에 프라하의 오르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드보르작은 음악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오르간 학교에서 고전음악의 기초 지식 등 음악이론 분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지만 드보르작은 강압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론보다 연주 부문에 더 많은 재능을 보였다. 드보르작은 성 체칠리아(St. Cecilia)협회의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며 그 곳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성 체칠리아 관현악단 지휘자인 안토닌 에프터(A. After)는 드보르작의 음악에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드보르작은 그로 인해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과 바그너의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여러 해 동안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해있었다.

1860년경 드보르작은 이 오르간 학교를 졸업했을 무렵 체코 프라하에 국립극장이 설립되어 비올라주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드보르작은 비올니스트로 지원하여 1862년부터 1871년까지 약 9년간 전속단원으로 근무하였다.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의 <파우스트 Faust>⁴⁾, 글린카(Mikhail Glinka 1804~1857)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Rouslan and Ludmila>⁵⁾ 등 오페라를 연주하고 접하는 기회를 가지며 많은 음악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체코 국민주의⁶⁾ 음악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고 이 작품들에서 그는 민족 전통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⁷⁾ 1866년 이후

4) 피테의 희곡을 원작으로 프랑스 작곡가 구노가 작곡한 오페라

5) 러시아 국민오페라의 창시자 글린카의 오페라로 러시아 오페라의 창시를 알린 작품

6) 19세기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음악으로, 작곡가가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민족 고유의 악어법이나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작품 속에 민족적인 감각의 양식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작곡가로는 러시아의 글린카, 립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르그스키, 체코슬로바키아의 드보르작 등이 있다

7)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역, (Marshall Cavendish Corp.), 『The Great Composers』, 서울:

스메타나(Bedrich Smetana 1824~1884)⁸⁾가 지휘자로 부임하였고 그의 영향으로 인해 체코 민족음악을 일으키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65년경 드보르작이 가르친 제자 중 금세공사 체르마크의 딸인 16살의 요제파를 사랑했지만 그 둘은 안타깝게 맺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집의 음악교사로 지속적인 왕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제파의 동생이자 콘트라토 가수인 안나와 가까워 졌고, 그 둘은 1873년 결혼을 하였다. 두 사람은 3명의 자녀를 얻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으며 드보르작의 작곡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어 작곡가로서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했던 드보르작은 1875년 오스트리아의 서반부에서 거주하는 가난하고 젊은 음악가에게 제공되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장려금을 타게 되는 행운을 얻었고, 1878년에는 브람스를 만나 그의 후원을 받으며 작곡활동을 하게 되었다.

브람스는 장려금 수혜뿐만 아니라 드보르작의 작품 <모라비아 2중창 Moravian Duet> Op.32과 <슬라브 춤곡 Slavonic Dances> Op.46⁹⁾ 제1집 출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계기로 인해 서유럽 사람들은 보헤미아의 흥겨운 리듬과 서정적인 음률을 가진 그의 음악에 매료되었고,¹⁰⁾ 많은 곳에서 드보르작을 찾는 초청장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드보르작은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1880년에는 드보르작 가곡분야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자 이 논문의 주제인 <집시의 노래 Zigeunerlieder> Op.55를 짐 크로사에서 출판하였다.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8)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곡가.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서 국민극장의 전신인 가극장의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교향시에는 리스트 등 신 독일파의 수법을 도입하여 민족적인 음악을 창조하였으며, “국민의 용군행진곡”, “자유의 노래” 등의 작품을 남겼다

9) 보헤미아에 있어서의 슬라브 민족 향토정서를 순수한 음악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안타깝게 호소하는 듯한 가락 속에 깊은 향토색이 가득 차 있다. 리스트나 브람스의 헝가리 음악과 함께 ‘민족음악의 정화’라 칭송받고 있다

10)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역, (Marshall Cavendish Corp.), 『The Great Composers』, 서울: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이 시기에 그는 가곡작품 작곡에 활기를 띠었는데, <집시의 노래> Op.55를 작곡하므로써 가곡 작곡의 절정기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후에 드보르작은 세 자녀를 각기 다른 사연으로 잃게 되는 비극적인 일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었다. 카톨릭 신자였던 드보르작은 이 슬픈 심정을 담아 3년 전 시작했던 <슬픔에 잠긴 성모 Stabat Mater> Op.58 11)를 다시 손보기 시작해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1884년 3월 드보르작이 영국을 방문해 직접 지휘하며 연주한 곡으로 그 곳에서 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1887년에는 <슬라브 춤곡> 제 2집을 완성했고, 1891년 실내악의 피아노 3중주 <뚝카 Dumka>¹²⁾를 작곡하였다. 그로 인해 그의 명성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여한 박사학위도 받고, 프라하 음악원에서 교수로 임명되었다. 1892년에는 뉴욕 백만장자의 아내이자 미국 오페라협회와 뉴욕 국립음악원 설립자인 자넷 서버(Jeannette Thuber)의 요청으로 뉴욕 국립음악원의 원장이 되었다.

드보르작은 미국에서 머무르며 미국의 흑인 영가와 인디언 음악에 매료되어 그 음악들의 당김음 리듬, 지속저음, 변격종지와 같은 특징을 자신만의 음악으로 재창조하여 발전 시켜갔다.

이 시기에 <신세계 교향곡 From the New World> Op.95와 현악 4중주곡 제 12번 F장조 <아메리카 America> Op.96, <성서의 노래 Biblische Lieder> Op.99등을 작곡하였다. <신세계 교향곡>은 보헤미아 전통 민요의 멜로디와 미국 흑인음악 인디언 음악의 리듬을 능숙하게 배합하여 만들어 그의 교향곡 중 걸작으로 남아있다.¹³⁾

하지만 드보르작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했기 때문에 미국생

11) 예수 그리스도의 책형(磔刑)을 한탄하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애도하는 곡이다

12) 슬라브 민요의 일종, 설화적인 성격을 가지며 애상적인 부분과 즐거운 부분의 급격한 교체를 특징으로 갖고있다

13)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역, (Marshall Cavendish Corp.), 「The Great Composers」, 서울: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활이 그다지 행복하지만은 않았고, 서머여사의 경제적 문제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겹쳐 고향인 체코로 귀국하였다. 드보르작은 1895년 다시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체코 오페라를 쓰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페라 작곡에 전념하고 마침내 <악마와 카차 Cert a Kae / 1899년>, <루살카 Rusalka / 1901년>, <아르미다 Armida / 1904년> 등의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다.

1901년에는 오스트리아 국회의 중신 상원의원에 임명이 되어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가 1904년 5월 1일 뇌출혈로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드보르작은 보헤미아의 시골 마을과 소박한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얻어 곡을 썼지만 그의 명성은 국경을 초월하였다. 평생 소박함과 평범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생각하였으며 끈고 겸손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된다.¹⁴⁾

14)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역, (Marshall Cavendish Corp.), 『The Great Composers』, 서울: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2) 드보르작 가곡의 특징

보헤미아 최대의 작곡가인 드보르작은 민족주의 음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거의 70여 곡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또한 그의 가곡들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영향으로 독일 리트(Lied)에 흡사하고, 독일어로 불리워지는 경우가 많다. 드보르작의 가곡들은 종종 그의 정신적 조연자이자 후원자였던 브람스의 가곡과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초기 작품들은 주로 실험적인 양식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과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의 영향을 보인다. 중기 작품부터 바그너와 스메타나의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곡가는 브람스이다. 예를 들어 화성법의 참신함은 바그너, 체코 특유의 민속음악적 요소는 스메타나, 음악 전체 구성과 주제의 전개법은 브람스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 시기부터 드보르작만의 색으로 작곡되며 그의 가곡영역의 활기를 띄어 보헤미아 음악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드보르작의 가곡에서 멜로디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멜로디의 소재는 대부분 민족적이고 향토성이 강한 춤곡이나 민요의 멜로디와 리듬을 발취하여 변형하였고, 점차 자신만의 독창적 스타일로 발전시키며 풍부한 음색을 나타냈다.

형식은 대부분 변형된 유절형식¹⁵⁾을 사용하였으며 피아노 반주에서는 당김음이나 강약개시, 셋잇단음표와 육잇단 음표가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리듬의 구성으로 움직여지는 음의 재료에 의하여 노래를 발전시켰다.¹⁶⁾

피아노 반주들은 화성적인 흥미와 색채감으로 가득 차 있고, 전주, 간주,

15) 변형된 유절형식 : 기본적으로 같은 선율과 반주가 반복되지만 각 연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형식

16) 이준화,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Op.103)와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Op.55)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9년

후주부분은 화려하고 풍부한 음형을 잘 활용하고 표현하여 다양한 감성의 느낌을 살려주며 즉각적인 감정적 감동을 보여준다. 반면 작시법에 대한 그의 접근은 고르지 않은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¹⁷⁾

그의 대표적 가곡으로는 <모라비아 이중창 Moravian duets> Op.20, 32, 38, <사랑의 노래 Liebeslieder> Op.83, <성서의 노래 Biblische Lieder> Op.99 등이 있는데 드보르작의 가곡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가곡은 <집시의 노래> Op.55이다.

17) 채은희 역(Kimbell, Carol). 「Song (하권)」.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년

2. 집시음악의 특징

1) 집시 음악의 공통적 특징.

집시 음악은 집시들의 고유 음악으로 집시들이 방랑생활을 하며 정착한 지역의 음악을 자신들만의 성격을 가미시켜 새롭게 재탄생시킨 음악이다. 집시음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동유럽(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 등)과 이베리아 반도¹⁸⁾로써, 각 나라별의 개성 있는 음악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정열은 19세기 음악과 문학에서 낭만적인 이미지들로 계속 등장한다.¹⁹⁾ 각국의 집시음악은 공통적으로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집시들은 누군가에게 보여 지기 위한 연주용 음악이 아닌 자신들의 내면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스스로를 위한 음악으로 자아의식과 자존심이 강함을 보인다. 둘째, 집시들의 삶처럼 어느 것에 정해지지 않고 순간순간 감정에 이입하여 즉흥적인 기법이 많이 가미되어있다. 이는 미국의 재즈 음악에서 보이는 즉흥연주와도 흡사함을 보인다.²⁰⁾ 셋째, 세분화 된 리듬구조와 다양한 장식음을 사용하여 더 격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넷째, 갑자기 *pp*에서 *ff*로 Allegro에서 Adagio로 변하고, 약박에서 강한 악센트가 나오는 등 템포, 리듬, 강약법의 변화와 교체가 매우 급격히 쓰여진다. 다섯째, 의미가 담기지 않은 감탄사를 자주 사용한다. 여섯째, 집시들만의 특징적인 집시음계를 사용하였다.²¹⁾ 마지막으로 집시들은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아닌 고대부터 존재한 악기로 집시들의 성격을 나타 낼 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하였다. 그 악기로는 다음 표와 같다.

18) 유럽의 남서부 대서양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반도

19) 채은희 역(Kimbell, Carol). 「Song (하권)」.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년

20) 고윤정, “성악작품에 나타난 집시음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21) 고윤정, “성악작품에 나타난 집시음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표 1] 집시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

악 기 명	악 기 특 징
피들 (Fiedel)	중세 유럽에서 사용된 현악기로 바이올린의 전신이고, 리라 ²²⁾ 에서 유래되었다.
기타라 (Kithara)	고대 그리스의 발현악기 ²³⁾ 로 나무로 되어있으며, 공명통 2개와 현 5~11개로 구성되어있다.
발라라이카 (Balalaika)	러시아의 민속악기로 세모꼴 나무 몸통을 갖고 있다. 울림구멍 2~3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손으로 연주 한다.
백파이프 (Bapife)	바람통과 5~6개의 리드(reed) ²⁴⁾ 가 달린 관을 갖고 있다.
침바롬 (Cimbalom)	헝가리 집시음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악기로 현을 작은 해머로 쳐서 음을 내는 악기이다.
류트 (Lute)	16세기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발현악기. 통은 만들어진 크게 한 것같은 모양으로 작은 나무토막을 모아 붙여 만들었다.
주르나 (Zurna)	동약식의 오보에(Oboe)이다.
덜머시 (Dulcimer)	첼발로에 속하는 악기로 작은 해머로 두드려서 소리 낸다.
트라이앵글 (Triangle)	등근 강철 막대로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의 악기로 막대로 쳐서 소리 낸다.

22) 고대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이래의 발현악기. 공명통위에 2개의 구부러진 완목(腕木)을 세우고 그 위 끝에 버팀 대를 붙여서, 버팀대에서 공명통으로 줄을 건너맨 발현악기

23) 손가락이나 다른 기물로 튕겨 소리를 내는 현악기

24) 기명악기의 발음체로서 악기에 부착시키는 데,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든 얇은 조각

2) 동유럽 집시음악의 특징

동유럽에 속하는 체코는 모라비아 강을 중심으로 서쪽지방과 동쪽지방으로 나뉜다. 서쪽음악은 보헤미아가 중심이 되어 서구적이며 선율의 구성과 리듬 등이 규칙적이다. 동쪽음악은 슬로바키아와 모라비아 중심으로 한 음악으로써 불규칙하고 자유로운 것을 보여준다.

동유럽 집시음악의 특징으로 첫째, 음계는 앞서도 언급했듯 집시음악에는 특징적인 음계가 사용되는데 동유럽에서는 집시 단음계(Minor gyps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연 단음계에서 4음을 반음 올려 증2도의 음정을 포함해 만들어진다. 음의 구조는 <장2도-단2도-증2도-단2도-장2도-장2도>로 되어있다.

둘째, 선율은 짧은 동기가 자주 반복되면서 단순한 선율에 장식음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리듬은 악센트에 따른 리듬 구조를 갖는데, 체코어는 항상 각 낱말의 첫음절에 악센트를 둔다. 이는 체코에서는 a, the 같은 관사가 없기 때문이며 노래나 기악의 민속음악은 강약이 분명한 리듬으로 작곡된다.²⁵⁾ 마지막으로 형식은 느리고 장중한 도입부와 빠르고 격렬한 부분으로 구성된 춤곡 형식인 차르다스(Csardas)²⁶⁾를 사용한다.

위와 같은 동유럽 집시음악의 특징들은 <집시의 노래> Op.55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5) Bruno Net시, 대한음악저작 연구회역, 「서양의 민족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1989

26) 차르다스 : 집시음악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헝가리의 무용곡. 4/4박자 또는 2/4박자로서 느리고 우울한 느낌을 주는 부분과 빠르고 격렬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다

3. Zigeunerlieder Op.55

1) 작품 개요

드보르작 가곡 <집시의 노래> Op.55는 1880년 1월 18일부터 2월 23일 까지 약 1달에 걸쳐 작곡 되어졌으며 그 해 짐 크로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체코의 시인인 헤이독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총 7곡으로 된 연가곡으로 동유럽의 노르만디 집시들의 음악과 문화를 기념한다. 가사는 독일어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로는 당시 독일어가 널리 보급되었고 출판과 판매에 유리했기 때문에 드보르작은 독일어를 선택하여 곡을 만들었다. 또한 이 작품은 보헤미아 출신으로 빈에서 활동하고 있던 궁정가수이자 그의 친구인 발터(Gustav Walter)에게 헌정되어졌다.²⁷⁾

<집시의 노래> Op.55는 집시를 주제로 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자연, 자유, 사랑, 유쾌함에서 우울함에 이르는 모든 정서적인 표출을 하였다. 피아노 파트에서 집시들이 악기인 침바롬(cimbalom)과 트라이앵글 등의 효과를 살리려 했고, 노래 성부에서는 집시적인 면과 보헤미아적인 면을 멋지게 융합하여 표현하였다.²⁸⁾

7곡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 1곡과 제 7곡에서는 장엄하고 음영적인 성격을 보이며 집시의 속박 없는 생활을 주제로 하였다. 제 2곡, 제 5곡, 제 6곡에서는 체코와 헝가리 리듬을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고 자유분방한 무곡 풍을 띄고 있다. 제 3곡에서는 브람스의 영향을 보이며 긴 멜로디와 조용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제 4곡에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이 연가곡의 중심을 이루기도 하는 곡이다.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 Op.55는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 Op.103과

27) 주향단, "A. Dvořák의 연가곡 집시의 노래 <Zigeunerlieder> Op.55의 분석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년

28) 음악 지우사. 「드보르작(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15)」, 서울: 음악세계. 2002년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작곡가들은 흥겨운 집시의 삶을 제 각기 표현하고 작곡하였으나 드보르작의 음악이 좀 더 폭넓고 풍부한 짜임새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⁹⁾

29) 채은희 역(Kimbell, Carol). 「Song (하권)」.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년

2) 작품분석 및 연주 방법

(1) 제 1곡 Mein Lied Ertönt (나의 노래가 울려 퍼지네)

① 가사 해석

Mein Lied ertönt, ein Liebespsalm, beginnt der Tag zu sinken
[main li:t ε:rtø:nt áin lí:bəspəlm bəgint de:r ta:k tsu: zɪŋkən]
나의 노래 울리다 (한) 사랑찬가 시작하다 (그) 날 ~때에 (해가)지다
나의 사랑 찬미가는 울리네, 해가 저물 때에도

Und wenn das Moos der welke Halm Tauperlen heimlich trinken.
[Unt ven das mo:s de:r vɛlkə ha:lm taupɛrlən háimlic trɪŋkən]
그리고 ~때에 (그) 이끼 (그) 시든 줄기 진주이슬 비밀리에 머금다
시든 줄기에 진주이슬을 비밀스레 머금을 때

Mein Lied ertönt voll Wanderlust, in grünen Waldes hallen,
[main li:t ε:rtø:nt fɔl vándɛrlust in gry:nən valdəs hálən]
나의 노래 울리다 가득찬 방랑(의)즐거움 ~안에 녹색의 숲 울리다
방랑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 노래 저 푸른 숲에 가득 울려 퍼지네

und auf der Pussta³⁰⁾ weitem Plan lass' frohen Sang ich schallen,
[Unt auf de:r pusta váitəm pla:n lás fro:ən zaŋ ɪç fáln]
그리고~위에 (그) 푸스타 넓은 평야 ~하자 기뻐하는 노래 나는 울리다
넓은 평야 푸스타 위에서 내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라

Mein Lied ertönt voll Liebe auch, wenn Haide³¹⁾stürme toben
[main li:t ɛ:rtø:nt fol lí:bə aux ven háidəftýrmə tó:bən]
나의 노래 울리다 가득찬 사랑 또한 언제 황무지폭풍 미친듯이
나의 노래는 사랑을 가득 올리네, 광란적인 폭풍 속에서

wenn sich zum³²⁾ letzten Lebens hauch des Bruders Brust gehoben!
[ven zɪç tsum lɛtstən lé:bəns haux dɛs brú:dərs brust gəho:bən]
때에 그들에 ~때 마지막 생활,삶 호흡 (그) 형제들 가슴 들다,들어올리다
내 형제들의 가슴에 마지막 호흡이 다 할 때에도, 나의 노래는 울려 퍼지네

제 1곡은 짐시들이 방랑하며 떠돌아다니는 삶 속에서 속박 없고 자유를
동경하는 마음을 정열적인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무곡풍의 전주와 정열
이 담긴 선율로 노래 성부와 반주부가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30) Pussta : 헝가리의 초원, 목장지

31) Haide = Heide : 황무지

32) zum : zu dem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Moderato 빠르기의 4/4박자 곡으로 조성은 g minor이며 V도와 i 도 화음을 기본으로 하고 그 사이 임시표를 사용하여 화성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다. 형식은 전주, 간주, 후주를 포함하여 A-A'-A"의 3부분의 변형유절 형식을 사용하였다.

[표 2] 제 1곡의 형식

형식	전주	A		간주	A'		A"		후주
		a	b		a'	b'	a"	b"	
마디	1-6	7-10	11-1 5	16-1 9	20-2 5	26-2 8	29-3 2	33-3 7	38-4 1
조성	g				g, G	G	g		
템포	Moderato								
박자	4/4 박자								

전주 부분은 트레몰로 효과의 육잇단 음표를 사용하여 탬버린을 흔드는 소리를 묘사하였고, 마디 3부터 셋잇단 음표에 하행하는 선율과 악센트를 주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마디 5부터 시작되는 아르페지오 기법은 침바름 연주를 연상케 하며 이 곡의 전체적 반주는 집시 악기의 효과를 주어 정열적이고 경쾌한 춤곡을 보여준다.

<악보1> 제 1곡 마디 1 ~ 7

Moderato 탬버린 소리 묘사

3

5 Voice

침바름 소리 묘사 Mein Lied er - tönt ein

마디 11~12는 반주 부분과 노래 부분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악보2> 제 1곡 마디 10 ~ 12

10

sin - - ken

Und wenn das Moos, der wel ke

f

fp *dim.* *pp*

6 3 3 3 3

마디 20부터 A'가 시작되는데 마디 29~30에서 *pp*로 시작되며 반주부분도 전체적인 반주와 달리 긴 음표를 사용하여 멈추는 듯 한 형태로 연주된다. 이는 마디 31~32로 가는 긴장감을 더욱 조성해 주고, 마디 31부터 *cresc.* 가 시작되어 'toben'에서 *f*가 되는데 반주부분도 빠른 페시지 기법을 사용하여 광란적인 폭풍이 휘몰아치는 강한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이 때 성악가가 주의해야할 점은 마디 29에서 *a tempo* 가 나오에도 불구하고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rit.*를 해 주었고 뒤에 점점 몰아가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pp*는 충분히 표현하되 느려지지 않도록 한다.

<악보3> 제 1곡 마디 27 ~ 32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7-32. It consists of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7-30,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31-32. The vocal line has lyrics in German.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triplets and dynamic markings.

Measure 27: *f* (forte). The vocal line has a triplet of eighth notes.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left hand. Dynamics: *mf* (mezzo-forte) in the piano part, *dim.* (diminuendo) in the piano part.

Measure 28: *molto rit.* (molto ritardando). The vocal line has a triplet of eighth notes.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left hand. Dynamics: *mf* (mezzo-forte) in the piano part, *dim.* (diminuendo) in the piano part.

Measure 29: *pp a tempo* (pianissimo a tempo). The vocal line has a quarter note.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quarter note. Dynamics: *pp* (pianissimo) in the piano part.

Measure 30: *a tempo*. The vocal line has a quarter note.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quarter note. Dynamics: *pp* (pianissimo) in the piano part.

Measure 31: *f* (forte). The vocal line has a quarter note.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quarter note. Dynamics: *f* (forte) in the piano part.

Measure 32: *f* (forte). The vocal line has a quarter note.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quarter note. Dynamics: *f* (forte) in the piano part.

Lyrics:
 fro - hen Sang ich schal - - - - - len. Mein Lied er - tönt voll Lie be auch, wenn
 Hai - de - stür - me - to - ben;

마디 35~37은 이 곡의 마지막을 노래하는 부분이자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마디 35부터 *cresc.* 가 되어 ‘gehoben (들다,들어올리다)’에서 *f*로 연주되며 *rit.* 되는데 이는 마지막 호흡이 다 할 때에도 노래는 울려 퍼진다는 것을 강하게 외치듯 표현해 준다.

<악보4> 제 1곡 마디 33 ~ 37

33 *p* wenn sich zum letzten Lebenshauch des Bruders.

36 *f* Brust gehoben.

rit. *a tempo*

fz 6 6 3

Detailed description: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3-37. The top system (measures 33-35) features a vocal line with lyrics 'wenn sich zum letzten Lebenshauch des Bruders.' and a piano accompaniment with triplets and a *p* dynamic. The bottom system (measures 36-37) features a vocal line with lyrics 'Brust gehoben.' and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f* dynamic, *rit.* marking, and *a tempo* marking. The piano part includes sixteenth-note chords and triplets.

(2) 제 2곡 Ei! Wie mein Triangel (아! 나의 트라이앵글)

① 가사 해석

Ei! Wie mein Triangel wunderherrlich läutet!
[ái vi: main triaŋel vʊndər'hérlɪç lɔytet]
아!(감탄사) 얼마나 나의 트라이앵글 경이하고 화려한 울리다
아! 아름다운 트라이앵글은 얼마나 밝게 울리는가!

Leicht bei solchen Klängen in den Tod man schreitet!
[laɪçt bai zɔlçən klɛŋən in de:n to:t man ʃrɛ́tet]
경쾌한 와 그러한 울림 ~안에 그 죽음 사람들은 가다
그 경쾌한 울림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죽음으로 다가 가네

in den Tod man schreitet beim³³⁾ Triangel schallen!
[in de:n to:t man ʃrɛ́tet baɪm triaŋel ʃalən]
~안에 (그) 죽음 사람들은 가다 (그)옆에 트라이앵글 울리다
트라이앵글의 울림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죽음으로 다가 가네

Lieder, Reigen, Liebe, Lebewohl dem Allen!
[li:dər raɪgən lí:bə lé:bəvo:l de:m alən]
노래 율무³⁴⁾ 사랑 작별 (그) 모두
모든 이에게 노래와 춤, 사랑, 작별.. 매 한가지네

제 2곡은 트라이앵글이 울리는 소리를 묘사하여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음악의 분위기와 다르게 가사에서 ‘경쾌한 울림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

33) beim : bei dem

34) 여럿이 둥글게 돌아가며 추는 춤

씩 죽음으로 다가 가네' 라는 내용은 집시들이 자유를 동경하고 즐기는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외롭고 쓸쓸한 상반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Allegro의 2/4박자로 반주의 리듬적, 화성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은 g minor로 V도에서 i도 진행이 많으며, 마디 7에서 E \flat Major로 전조되고 마디 18에서 다시 g minor로 돌아온다. 형식은 A-A'-A"의 변형유절 형식으로 전주가 없이 간주와 후주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제 2곡의 형식

형식	A			간주	A'			간주	A"		후주
	a	b	b'		a	b"	b'''		c	a"	
마디	1-6	7-10	11-15	16-20	21-24	25-28	29-32	33-34	35-38	39-44	45-47
조성	g	E \flat	g								
템포	Allegro										
박자	2/4 박자										

전주 없이 시작되는 곡으로 성악선율이 먼저 ‘Ei! (아!)’ 하며 경쾌하고 강한 느낌의 감탄사로 시작하고 1박자 뒤에 반주부가 등장한다. 반주부에 나타나는 스타카토와 레가토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스타카토는 트라이앵글을 묘사하고 있으며 빠른 곡으로 춤곡 형태를 보여준다.

<악보5> 제 2곡 마디 1 ~ 4

Allegro

f

1

Ei! _____ Ei, wie mein Tri - an - gel

Allegro 트라이앵글 묘사

f *p*

마디 11부터 점차 *cresc.* 되어 마디 13의 'schreitet (가다)'에서 *f*와 악센트를 주었는데 이는 죽음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A부분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준다. 이 때 옥타브로 하행하는데 음정과 포지션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유지시켜준다.

<악보6> 제 2곡 마디 9 ~ 1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9 to 12. The vocal line (treble clef) has lyrics: "Klän - - gen in den Tod man". The piano accompaniment (bass clef)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a triplet in measure 11. A "Ped." (pedal) marking is present in measure 10, and an asterisk "*" is placed below measure 11.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3 to 16. The vocal line has lyrics: "schrei - - - - tet!".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s with a forte (*f*) dynamic and includes markings for *dim.* (diminuendo) and *p* (piano) in measures 14 and 15 respectively.

마디 25~28은 이 곡에서 가장 고음이 나는 부분으로 A부분보다 3도 올라가고 *p*와 *f*, *cresc.* 와 *decresc.* 가 사용되어 A" 부분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준다. 음이 상행하고 하행하는데 레가토와 라인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악보7> 제 2곡 마디 25 ~28

25

p *f*

Lie - der, Rei - gen, Lie - - be,

마디 41~42에서 *rit.* 와 *a tempo* 가 나오고 마디 43에서 다시 *rit.*와 *decresc.* 가 사용되어 *pp*로 끝나는데 이는 모든 것과 작별한다는 것을 기쁘지만 허전한 여운을 남기는 듯 보여준다. 또한 ‘Lebewohl(작별)’ 가사가 반복 될 때 앞에 마디 39~40에서 나오는 *p*와 ♩로 쓰여진 것과 달리 *f*와 세분화 된 리듬 구조로 감정의 폭이 더 커짐을 표현하여 아쉬움을 더 강조해 준다. 후주 마지막 마디에서 반주부 왼손의 d음은 낮은음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음을 사용하여 *ppp*로 끝나는데 이는 모든 것과 작별하며 아쉬지만 자유롭고 편안한 뒷모습을 연상케 한다.

<악보8> 제 2곡 마디 39 ~ 47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9 to 42. The vocal line starts at measure 39 with a *p* dynamic, singing "Le - be - wohl dem Al - len!". At measure 41, the tempo changes to *rit.* and the dynamics shift to *mf*. At measure 42, the tempo returns to *a tempo* and the dynamics shift to *f*.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with a prominent D note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3 to 47.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len!" at measure 43, marked *rit.* and *pp*.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eighth-note pattern, marked *pp* at measure 43 and *ppp* at measure 47. A fermata is placed over the final notes of the piano part at measure 47.

(3) 제 3곡 Rings ist der Wald (이 곳 숲에서)

① 가사 해석

Rings ist der Wald so stumm und still,
[rɪŋs ɪst de:r valt zo: ʃtʊm ʊnt ʃtɪl]
들레에 ~이다 (그) 숲 그렇게 무언의 그리고 고요한
은 숲은 사방이 고요하고 적막하여,

das Herz schlägt mir so bange,
[das hɛrts ʃlɛkt mi:r zo: baŋə]
(그) 심장 치다 나를 그렇게 근심
나의 마음은 근심에 요동치네.

der schwarze Rauch sinkt tiefer stets und trocknet meine Wange.
[de:r ʃvartsə raʊx zɪŋkt ti:fər ʃte:ts ʊnt trɔknet mainə vaŋə]
(그) 검은 연기 가라앉다 더 깊이 항상 그리고 마르다 나의 뺨
검은 연기가 끝없이 아래로 내려와 나의 뺨을 스친다.

Ei, meine Tränen trocknen nicht, musst andre Wangen suchen
[ái mainə tré:nən trɔknən nɪçts must ándrə vaŋən zú:xən]
감탄사 나의 눈물이 나다 마르다 아무것도~않다 ~해야한다 다른 뺨 구하다
아, 나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나 그대의 뺨을 간절히 찾네.

Wer nur den Schmerz besingen kann, wird nicht dem Tode fluchen.
[vɛ:r nu:r de:n ʃmɛrts bɛzɪŋən kán vɪrt nɪçt de:m to:də flu:xən]
누구 다만 (그) 아픔, 고통 노래를 읊다 ~할수 ~이다 아무것도~않다 (그) 죽음 저주하다
괴로운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자만 죽음을 저주하지 않으리.

제 3곡은 매우 느리고 감성적으로 흐르는 곡으로 브람스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 곡이다. 피아노 반주부분이 가사의 감정표현에 더욱 풍부하고 표현적으로 이용된 곡이기도하다. 집시들의 괴로움과 슬픈 마음을 표현한 곡이지만 울부짖거나 격하게 쓰여지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쓰여져 슬픈 마음이 한층 더 깊게 느껴진다.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Moderato의 4/4박자로 안정된 빠르기를 갖고 있다. 조성은 B♭ Major로 g minor와 오가며 진행하다 B♭ Major로 끝난다. 임시표를 자주 사용하여 틀에서 벗어난 화성의 형태를 띄는 곡이다. 형식은 전주, 간주, 후주를 포함하여 A-A'의 변형유절형식으로 되어있다.

[표 4] 제 3곡의 형식

형식	전주	A			간주	A'			후주
		a	b	c		a'	b'	c'	
마디	1-2	3-7	8-10	11-18	19-23	24-27	28-31	32-39	40-45
조성	B♭	g			g, B♭	B♭		g	g, B♭
템포	Moderato								
박자	4/4 박자								

아르페지오의 반주부가 *pp*로 시작되면서 숲의 고요함과 적막함을 보여주며, 오른손의 음음표의 울림으로 화성의 풍부함을 더 해주고 있다. 반주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연주되는데 이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과 떨어지는 눈물을 묘사하고 있다.

<악보9> 제 3곡 마디 1 ~ 4

1 **Moderato** *p*

Rings ist der Wald so

Moderato *pp*

con Ped.

마디 8과 마디 10에서 점 4분음표의 사용으로 전체적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 느낌을 피하고 *cresc.*를 함께 사용하여 'bange(근심)'이라는 이 곡 주제의 중요한 가사를 고음이 아닌 저음에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악보10> 제 3곡 마디 5 ~ 12

5

poco cresc.

stumm und still, das Herz schlägt mir so bange, das

poco cresc.

9

Herz schlägt mir so bange; der

p

f

마디 13~16과 마디 34~39는 A와 A'에서 음악적 표현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동일하게 *cresc.* 와 *delesc.* 되며 *dim.* 와 *pp* 로 마무리되는데, 이 때 음이 도약할 때 이음줄이 연결되어 있듯이 전체적으로 한 호흡으로 라인을 부드럽게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호흡을 준비하고 부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보 11>,<악보 12>

<악보11> 제 3곡 마디 13 ~ 21

13 *f* *p dim.*
 schwarze Rauch sinkt tie - fer stets und trock - net mei - ne Wan - -

p *f* *p dim.*

ped. * *ped.* *

17 *pp* *rit.*
 - - ge. *rit.*

pp *poco a poco string.*

<악보 12> 제 3곡 마디 34 ~ 41

34 *f* *dim.*

nur den Schmerz be - sin - gen kann, wird nicht dem To - de flu -

cresc. *f* *p*

38 *pp*

- - - chen.

pp *cresc.*

마디 24 'Ei (아)' 는 제 2곡에서 경쾌하고 강하게 나오는 'Ei (아)'와 달리 부드럽고 슬픔이 묻어나는 감탄사이다. 2분음표로 짧지 않게 사용하였고, 'Ei (아)' 뒤에 쉼표 없이 선율과 연결되어 쓰여져 깊은 한숨과 마르지 않는 눈물에 대한 감정을 보여준다.

<악보13> 제 3곡 마디 22 ~ 25

22 **Tempo I**

Ei, mei - ne Trä - - nen

Tempo I

pp

con Ped.

후주는 처음과 같이 끝까지 고요하고 차분하게 마무리 되며, 이 곡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집시의 감정이 표현되기 보다는 독일의 리트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곡이다. 이 곡은 앞의 두 곡 과 달리 차분하고 긴 라인이 특징으로 충분한 호흡을 가지고 길게 연결되는 라인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주의한다.

(4) 제 4곡 Als die alte Mutter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노래)

① 가사 해석

Als die alte Mutter mich noch lehrte singen,
[als di: áltə mutər miç noχ lé:rtə zɪŋən]
~했을 때 (그) 노인 어머니 나의 아직 가르치다 노래하다
늙으신 어머니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Tränen in den Wimpern gar so oft ihr hingen.
[tré:nən in de:n vɪmpərn ga:r zo: oft i:r hɪŋən]
눈물 ~안에 (그) 속눈썹 아주 그래서 자주 그녀에게 달려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종종 맺혀있네.

Jetzt wo ich die Kleinen selber üb'³⁵⁾ im Sange,
[jetst vo: ɪç di: klainən zélbər ý:b im zaŋə]
지금 ~하는 때 나는 (그) 어린이 자기가 연습하다 (그)~에 노래
이제 내 아이들에게 그 노래 들려주노라니,

rieselt's in den Bart oft, rieselt's oft von der braunen Wange!
[ri:zəltʰs in de:n ba:rt oft ri:zəltʰs oft fɔn de:r braunən vaŋə]
흐르다 ~에 (그) 수염 자주 흐르다 자주 ~대해 (그) 갈색의 뺨
그을은 내 수염과 뺨 위로 한없이 눈물 흐르네!

제 4곡은 이 가곡에 중심적인 곡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친숙한 곡이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노래를 가르쳐 주시던 시절을 생각하며 향수 어린 분위기를 유지하여 가고 또 내가 그 노래를 내 아이에게 들려주며 어머니에 대한

35) üb' : über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이다. 조용하고 감미로운 선율에서 노래와 반주가 어울려 고독함과 아름다움을 한층 더 보여준다.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Andante con moto의 빠르기로 전체적으로는 6/8박자의 곡으로 반주는 6/8박자로 가지만 성악선율은 2/4박자로 한 곡에 두 개의 박자가 혼합 사용되어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당김음과 장식음을 많이 사용하여 집시 음악의 리듬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조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D Major로 되어있으며, 임시표의 사용도 많지 않아 화성의 진행이 단순한 편이다. 형식은 A-A'의 변형유절로 구성되어 있고, 긴 전주를 가지고 있어 전주가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표 5] 제 4곡의 형식

형식	전주	A		간주	A'		후주
		a	b		a'	b'	
마디	1-8	9-16	17-24	25-28	29-36	37-46	47-50
조성	D						
템포	Andante con moto						
박자	6/8박자 (반주부), 2/4박자 (성악부)						

A부분은 어머니가 내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던 것을 회상하는 내용이고 A'부분은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선율에 리듬과 화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반주부 왼손에 당김음 리듬 패턴(♩ ♩ ♩)과 풍부한 화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흔들며 어루는 따뜻한 느낌을 더 표현해 주었다.

<악보14> 제 4곡 마디 1 ~ 6

1 **Andante con moto**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a single treble clef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6/8 time signature. It contains six measures of music, starting with a whole rest in the first measure. The bottom staff is a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6/8 time signature. It contains six measures of music. The right hand part of the grand staff has a melody in the first measure, followed by a melodic line in the second measure, and then a series of chords in the third through sixth measures. The left hand part of the grand staff provides a steady accompaniment with a 'Ped.' (pedal) marking in the first two measures. Dynamics include 'mf' (mezzo-forte) and 'dim.' (diminuendo).

이곡은 선율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보여주는 곡으로 마디 11, 15, 31, 35에 도약 부분에 이음줄을 사용하여 선율을 더욱 부드럽게 연결 시켜 주었고, 이는 각 마디의 가사인 ‘Mutter (엄마)’, ‘Singen (노래)’, ‘Kleinen (아이)’, ‘Sange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의 주제적 가사를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악보15> 제 4곡 마디 11~12, 마디 15~16, 마디 31, 마디 35

마디 38~40는 이 곡에서 가장 고음이 나오는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마디 점차적으로 *cresc.* 되어 마디 39의 G으로 가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cresc.*로 긴장감 있는 진행의 충분한 표현은 해주되 빨라지지 않도록 해준다.

마디 44~46은 하행하며 *pp*로 끝나는데 이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여주는 듯 하다. 이 때 마디 45의 꾸밈음은 너무 짧고 가볍지 않게 부드럽게 처리해준다.

<악보16> 제 4곡 마디 38 ~ 50

38

in den Bart oft, rie - selt's oft
(mir vom Au - - ge, rie - selt's oft mir

43

눈물 묘사

von der brau - nen Wan - - ge!
auf die brau - ne Wan - - ge!)

47

morendo

(5) 제 5곡 Reinge stimmt die Saiten (줄을 맞추고!)

① 가사 해석

Reingestimmt die Saiten! Bursche, tanz' im Kreise!
[rángəʃtɪmt di: záitən burʃə tants im kraizə]
깨끗하게맞추다 (그) 악기를켜다 청년, 소년 춤 (그)~에 씨클
줄을 맞춰라, 청년들이여 원을 그리며 춤을 추라!

Heute froh, und morgen? Trüb', nach alter Weise.
[høytə fro: Unt mɔrgən try:p na:x áltər váizə]
오늘 즐거움 그리고 내일 슬픔 다음에 오래된 방법
오늘은 즐거운데, 내일은? 오랜 습관에 다시 슬퍼하리

Nächster Tag' am Nile, an der Väter Tische
[ne:çstər ták am ni:lə an de:r fə:tər tɪʃə]
다음 날 ~에 나일강 ~가에 (그) 아버지 식탁,탁자
내일은 나일 강가에서, 또 선조들 앞에서

reingestimmt die Saiten, in den Tanz, in den Tanz dich mische,
[rángəʃtɪmt di: záitən in de:n tants in de:n tants diç mɪʃə]
깨끗하게맞추다 그 악기를켜다 ~에 (그) 춤 ~에 (그) 춤 당신 혼합
악기소리에 맞추어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하자

Bursche, tanz' im³⁶⁾ Kreise!
[burʃə tants im kraizə]
청년,소년 춤 그~안에 씨클
청년들이여, 함께 춤을 추자!

제 5곡은 겉으로는 춤을 추며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만 내면적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갖고 있는 집시의 양면성을 노래하고 있다. 바이올린 연주에 맞추어 자유로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삶의 뒤에 조국 없는 서러움과 허망함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2/4박자로 빠르기는 Allegretto - Poco meno mosso - Un poco piu mosso - Poco meno mosso - Piu animato 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급격한 템포의 변화로 집시들의 자유로움과 쾌활함을 표현하고 있다. 조성은 d minor로 시작해 나란한조인 F Major를 자유롭게 오간다. 형식은 전주, 간주, Coda를 포함한 A-A'의 변형유절 형식으로 되어있다.

[표 6] 제 5곡의 형식

형식	전주	A			간주	A'			간주	Cod a
		a	b	a'		a	b'	a'		
마디	1-4	5-8	9-14	15-18	19-26	27-30	31-36	37-40	41-44	45-50
조성	d		d, F	F, d	d	d, F	F, d	d		
템포	Allegretto	Poco meno mosso	Piu animato		Un poco piu mosso	Poco meno mosso	Piu animato			
박자	2/4박자									

36) im : in dem

전주는 Allegretto와 *f*로 강하고 경쾌하게 시작되는데 마디 5에서 성악 선율이 시작되면서 Poco meno mosso와 *p*로 바뀌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디 5~8 반주부는 기타의 피치카토를 묘사하고 있다.

마디 9부터 Piu animato의 템포와 *f*, 악센트의 사용, 또 세분화된 반주 리듬으로 음악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오늘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반주부 왼손은 침바름 연주를 오른손은 탬버린 연주를 묘사하고 있다.

<악보 17> 제 5곡 마디 1 ~ 13

Allegretto **poco meno mosso**

Voice: 1

Piano: *f* *p*

Rein-ge-stimmt die Sai - ten,

기타의 피치카토 묘사

7 **f Più animato**

Bur - schen, tanz' im Krei - se! Heu - te froh,

침바름 소리 묘사

11

heu - te froh, und mor - gen? Trüb',

*

마디 45~49는 처음 시작인 ‘Reinge stimmt die Saiten! Bursche, tanz'im Kreise! (줄을 맞춰라, 청년들이여 원을 그리며 춤을 추라!)’를 반복하는데 *f*와 점점 빠르게 연주되며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하자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다.

<악보18> 제 5곡 마디 45 ~ 50

45 *f* string

Rein-ge-stimmt die Sai - ten! Bur- sche, tanz' im Krei - se!

string

Ped. sempre

이 곡은 빠르며 음의 도약이 많은 곡으로 음정과 포지션에 주의를 기울여 부르고, 템포 변화가 많은 곡으로 템포변화 시 반주와 노래가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6) 제 6곡 In den weiten, breiten, luft'gen (시원한 옷차림)

① 가사 해석

In den weiten, breiten, luft'gen
[in de:n váitən brátən luftgən]
~안에 (그) 더 넓은 넓은 바람이 잘 통하는
바람결에 휘날리는 옷차림의 집시는

Leinenkleide freier der Zigeuner als in Gold und Seide,
[láinənklaídə fráier de:r tsiɡəynər als in golt unt záidə]
무명옷 자유의 (그) 집시 ~보다 ~안에 금 그리고 비단
황금과 비단옷을 입은 것보다 더 자유롭다.

Ja! der gold'ne Dolman³⁷⁾ schnürt die Brust so enge,
[ja: de:r goltne dolma:n ʃný:rt di: brust zo: ɛŋə]
그렇다 (그) 황금 외투 동여매다 (그) 가슴 매우 좁음
그렇다. 황금외투는 가슴을 죄어 답답하고

hemmt des freien Liedes wanderfrohe Klänge
[hémt dəs fráien lí:dəs vándərfro:ə klɛŋə]
저지하다 (그) 자유의 노래 방랑의 기쁨 소리
방랑자의 자유로운 노래 소리도 방해를 받게 된다.

und wer Freude findet ander Lieder Schallen,
[unt ve:r frɔydə findət ándər li:dər ʃálən]
그리고 ~하는사람 즐거움 발견하다 다른 노래 소리
기쁨을 찾은 자들은,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르네

lässt das Gold, das schnöde, in die Hölle fallen!
[lɛst das golt das ʃnø:də in di: hœlə fələn]
~하자 (그) 금 (그) 무가치한 ~안에 그 지옥 떨어지다
황금, 그 무가치한 것들을 지옥 속에 빠트려 버려라!

제 6곡은 가사에서 ‘황금과 비단옷을 입은 것보다 더 자유롭다’라고 말하듯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답답하고 조이는 옷을 입은 것보다 시원하고 흐르는 편안한 옷을 입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내용처럼 집시들은 물질과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속박 없는 삶을 힘 있게 표현하는 곡이다.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Poco Allegro의 빠르기로 2/4박자로 되어있고, 빠르고 강렬한 느낌으로 당김음 형태를 반주부에 많이 사용하였다. 조성은 A Major로 시작하여 나란한조인 f# minor와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시작과 달리 f#로 마친다. 형식은 전주, 간주, 후주를 포함하여 A-B-A'의 세도막 형식을 사용하였다.

37) 옛날 고대 터키의 경비병이 입던 저고리, 또는 여인들이 입던 외투의 일종

[표 7] 제 6곡의 형식

형식	전주	A			간주	B			간주	A'			후주
		a	b	c		d	e	e'		a	b	c'	
마디	1-2	3-6	7-10	11-14	15-16	17-24	25-28	29-33	34	35-38	39-42	43-47	48-54
조성	A		A, f#	f#	A			A, f#	f#				
템포	Poco Allegro												
박자	2/4 박자												

마디 4~7와 마디 35~38에서 리듬의 세분화와 레가토를 사용하여 ‘넓고 가벼운 옷’, ‘즐거움의 발견’, ‘노래 소리’를 한층 더 가볍고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악보19> 제 6곡 마디 4 ~ 6, 마디 35 ~ 38

4

In dem wei - ten, breiten, luft' - gen

34

und wer Freu-de fin-det an der Lie-der Schal-len, lässt das Gold, das

p

반면 마디 17~30 은 리듬의 확대와 음표마다 악센트를 사용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자유를 억압받는 것을 강조하였고, 마디42~45 에서도 반주와 병행하며 *f*와 악센트를 주어 ‘황금, 그 무가치한 것 들을 지옥에 버리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였다.<악보20><악보21>

<악보 20> 제 6곡 마디 15 ~ 34

15 *f*

Jaj! der gold' - ne Dol -
 (das gold' - ne Mie -

20

man schnürt die Brust so en ge,
 der)

25 *f*

hemmt des frei - en Lie - des wan - der -

30

fro - he Klän - - - ge;

<악보 21> 제 6곡 마디 42 ~ 45

42 *f*

lässt das Gold, das schön - de, in die Höl - le fal -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a vocal line in treble clef, and the bottom staff is a piano accompaniment in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The key signature is D major (two sharps). The tempo/mood is marked with a forte (*f*) dynamic.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some chords and a melodic line in the bass.

이 곡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사 내용에 부합하여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경쾌함이 표현된 짧은 리듬과 선율 같은 경우엔 가볍고 부드럽게 표현하여 불러야하고, 강한 부정이 표현된 액센트가 있는 선율에서는 강하게 강조하여 부르되, 소리를 누르거나 밀어서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 7곡 Darf des Falken Schwinge (창공을 나는 새)

① 가사 해석

Darf des Falken Schwinge Tatra³⁸⁾ höh'n um rauschen,
[da:rf des falken ʃvɪŋən tátra hõ:ən um ráuʃən]
~해도 좋다 (그) 매 날개 타트라 높음 주위에 소리내다
매는 날개로 타트라 봉우리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wird den Felsenest er mit dem Käfig tauschen?
[wɪrt de:n félzənnəst ɛ:r mit de:m kéfɪç tauʃən]
~일 것이다 (그) 바위 등지 그는 ~와 함께 (그) 새장 바꾸다
바위위의 등지를 새장과 바꾸려 하겠는가?

kann das wilde Fohlen jagen durch die Haide,
[kan das vɪldə fo:lən ja:gən dʊʁç di: háidə]
할 수 있다 (그) 날뛰는 즐거운 몰다 ~동안 그 황무지
들 위에 뛰어 노는 야생의 말떼들을

wird's am Zaum und Zügel finden seine Freude.
[wɪrts a:m tsaum unt tʃy:gəl fɪndən zaɪnə frɔɪdə]
~일 것이다 ~에 고삐 그리고 속박, 억제 (장소에) 존재하다 그것의 자유
고삐에 묶어 둔다면 참지 못하리,

Hat Natur, Zigeuner, etwas dir gegeben?
[hat natú:r tʃigəynər etvas di:r gə'gə:bən]
가지고있다 자연 집시 무엇 그것의 주다
집시들이여, 자연은 그대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Jaj! zur Freiheit schuf sie mir das ganze, das ganze Leben.
[ja: tsu:r fráihait ʃu:f zi: mi:r das gantsə das gantsə lébən]
맞다 그~대해 자유 창조하다 그들은 나에게 (그) 아주,완전한 (그) 아주,완전한 생애
그렇다! 자연은 내 전 생애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제 7곡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와 들에서 뛰어노는 망아지 떼를 통해 자유로운 삶을 표현하는 곡이다. 자신의 삶을 찾고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새와 망아지에게 비유하여 만들어졌다.

38)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국경 부근을 동서로 뺨은 산맥.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6/8박자로 전주, 간주, 후주는 Allegro의 빠르기로, 노래 부분은 Meno Mosso의 빠르기를 갖고 있다. 조성은 d minor로 나란한조인 F Major와 번갈아가며 진행 되고 있다. 형식은 전주, 간주, 후주를 포함한 A-A'-A" 의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래 선율은 동일하게 진행 되고, 반주부의 변화로 3부분 형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8] 제 7곡의 형식

형식	전주	A		간주	A'		간주	A"		후주
		a	b		a'	b'		a"	b"	
마디	1-4	5-8	9-13	14-17	18-21	22-26	27-30	31-40	35-40	41-43
조성	d		F	d		F	d		F, d	d
템포	Allegro	Meno mosso		Allegro	Meno mosso		Allegro	Meno mosso		Allegro
박자	6/8									

전주는 Allegro로 경쾌하게 시작되어 마디 5에서 성악 선율이 나오면서 Meno mosso로 변화된다. 반주와 성악 선율이 옥타브로 병행하며 화성적 울림으로 진행하여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는 매를 연상케 한다.

<악보22> 제 7곡 1 ~ 7

1 **Allegro**

4 **Meno mosso**

Darf des Fal - den Schwin - ge Ta - tra-höh'n um -

마디 13부터 전주와 유사한 형태의 간주가 반복되고 마디 18부터 A'가 제시되는데 A과 성악 선율은 동일하지만 반주부의 변화를 주어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반주의 오른 손이 분산화음을 연주하며 광야에서 즐겁게 뛰노는 말을 연상케 한다.

<악보23> 제 7곡 마디 18 ~ 19

18 **Meno mosso**

Kann das wil - de Foh - - len

p 반주부의 변화

마디 31부터 A"가 제시되는데 이도 A'와 마찬가지로 성악 선율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반주형태만 옥타브 진행의 스타카토로 연주되는데 이는 자연이 짐시에게 자유를 준 것을 즐겁고 경쾌하게 표현 해주는데 더 효과적으로 쓰인다.

<악보 24> 제 7곡 마디 31~33

31 **Meno mosso**

Hat Na - tur, Zi - geu - - ner, et - - was dir ge-

p 반주부의 변화

마디 38에서 짧게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리듬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바로 나오는 B♭음정은 이 곡과 이 연가곡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고음으로 마지막을 강렬하고 힘 있게 끝낼 수 있도록 한다.

<악보 25> 제 7곡 마디 38 ~ 4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top staff is the vocal line, starting at measure 38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G4, A4, B4) marked *ff*, followed by a half note B♭4. The lyrics are "gan - ze - Le - - - - - ben!". The middle staff is a vocal line, also starting at measure 38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G4, A4, B4) marked *ff*, followed by a half note B♭4. The lyrics are "gan - ze - Le - - - - - ben!". The bottom staff is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ing at measure 38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G4, A4, B4) marked *f*, followed by a half note B♭4. The tempo marking "Allegro" is placed above the middle staff.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 major), and the time signature is 6/8.

성악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3절까지 성악 선율이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1절은 더욱 풍성하고 울림 있게, 2절은 경쾌하고 조금 가볍게, 3절은 자유로움이 느껴지게 부르되 너무 가볍지 않게, 각 절의 반주형태와 가사의 내용에 따라 음악적분위기와 표현에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연주하도록 한다.

Ⅲ. 결 론

드보르작은 19세기 후반 대표적인 민족주의 작곡가로 보헤미아의 민요적 음악과 무곡풍의 음악을 독일 낭만 음악적과 잘 융합하여 하나의 독창적인 음악양식으로 확립시킨 작곡가 이다.

<집시의 노래 Zigeunerlieder> Op.55는 민족서정시인 헤이둑의 시를 가사로하여 작곡한 작품으로, 그의 작곡 활동 중 가곡 작곡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다. 또한 민족음악 특징과 집시음악 특징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성공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시들이 자유를 동경하는 생활과 사상, 그 속에서 묻어나는 사랑과 그리움 등 집시들의 삶과 애환을 내용으로 하여 민족주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집시음악의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침발로, 탬버린, 트라이앵글 등 집시악기를 묘사하는 반주부가 자주 등장한다.

셋째, 주로 2부분 3부분의 변형 유절 형식을 사용하였고, 짧은 동기들에 변형을 주어 반복사용 하였다. 또 조성애 있어 집시음계를 자주 사용하고, 화성에 있어서는 임시표와 전조를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넷째, 고요하고 그리움이 묻어나는 제 3곡, 제 4곡을 제외한 나머지 5곡은 무곡 풍이며 정열적이고 경쾌함을 보여주는 곡으로 집시음악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작곡되었다.

다섯째, 셋잇단음표나 육잇단음표, 꾸밈음을 곡마다 모두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음의 도약이 많이 사용되어 충분한 호흡 조절과 힘의 조절이 많이 요구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강한 무곡 풍을 특징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품이

다. 한 곡 한 곡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주되, 한 곡의 분위기에만 취우치지 않고 전체적 흐름을 잘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이 연구한 이 논문이 <집시의 노래 Zigeunerlieder> Op.55를 앞으로 연주하게 될 성악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1) 일반서적

음악 지우사, 「드보르자크(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15)」, 서울: 음악세계. 2002.

정복주, 채은희, 「성악 예술 연주와 문헌」, 서울: 예술. 2012.

2) 번역서적

채은희 역(Kimbell, Carol). 「Song (하권)」.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역,(Marshall Cavendish Corp.), 「The Great Composers」, 서울: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Bruno Net시, 대한음악저작 연구회 역, 「서양의 민족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1989.

3) 사전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Britannica World Encyclopaedia),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2001.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허정근, 강두석, 「Minjungseogwan's Deutsch - Koreanisches Wörterbuch, 서울: 민중서관, 1974.

홍경호, 「Deutsch - Koreanisches Wörterbuch」, 서울: 범우사. 2000.

(독어 영어 사전)

4) 논문

고운정, “성악작품에 나타난 집시음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주향단, “A. Dvořák의 연가곡 집시의 노래 <Zigeunerlieder> Op.55의 분석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준화,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Op.103)와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Op.55)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9.

2. 외국서적

1) 서적

Beckerman Michael, ed, Dvořák, and His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obertston Alec, Dvořák, Chapter 12: The Song, London: J.M. Dent and Song, 1964.

2) 사전

Becker, Heinz. Article on Dvořák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1889.

Harold T. Betteridge, 「Cassell's German Dictionary」, New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78.

3. 악보

Antonin Dvořák. <Zigeunermelodien Op. 55>, International Music Company, New York, 1995.

ABSTRACT

A Study of Antonin Dvořák's

< Zigeunerlieder Op.55 >

Park, Bomi

Department of Music

Major in Vocal Music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tonin Dvořák (1841~1904) was a nationalist Czech composer of the late 19th century who was able to combine folk music of Bohemia and German romantic music to establish a unique form of music. This was expressed in instrumental pieces and songs in an appealing manner. Because he was highly influenced by Wagner and Brahms, his songs are very similar to German lied and they are often compared with compositions of Brahms.

Among Dvořák's vocal music pieces, <Zigeunerlieder> Op.55 has all features of folk music and Gypsy music. It shows common characteristics of Gypsy music, which are a reflection of selfconsciousness, dignity. It has an energetic mood with dramatic change in tempo,

rhythm, and dynamics

The piece of music was created by selecting 7 poems from poetical works of Adolf Heyduk (1835~1923) and it contains lives, joys and sorrows of Gypsies. In order to effectively express Gypsy music, lots of Gypsy's musical instruments are described in melodies and rhythm, mostly in modified strophic form. Also, it has beautiful tunes and style of dance music, where skip melodies and grace notes are often used.

The work presented here is to proper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composition through a study on Dvořák's life, characteristics of his music and songs, and features of Gypsy music as well as music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poems.

I wish this research on <Zigeunerlieder> Op.55 may help understanding and performing Gypsy music and folk music in general.